

## 17·18세기 耆老宴圖의 官僚服色 研究

이혜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졸업

### A Stud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Costume for the '*Giroyondo*' of 17 · 18th Century

Hye-Ja Lee

Maste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7. 3. 5 투고)

####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ostume mainly on the Joseon *Giroyondo*(耆老宴圖) between 17th · 18th Century. In Joseon Dynasty, they produced paintings to commemorate the meeting of *Girohwe*(耆老會), namely *Giroyon*(耆老宴); this painting is *Giroyondo*. The feature of *Giroyon* depended on political purpose and social phenomenon.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figures in *Giroyondo* and their costume were seen differently. By its character, *Giroyondo* was classified into official one from *Giroso*(耆老所), private one arranged by the participants and Court *Giroyon*(宮中賜宴圖).

People figured in *Giroyondo* are roughly divided into costume in *Girosin*(耆老臣) officials and minor officials. *Girosin* officials wore *Hongdalyong*(紅團領) and *Samo*(紗帽) in official *Giroyondo* while they wore *Hungnib*(黑笠) and *Jingnyong*(直領) in private *Giroyondo*. In Court *Giroyon*, which was for classy and formal Court event, they wore *Dalyong*(團領) and *Samo* but in colors of blue and green. Minor officials were observed in two categories; those who wore *Samo* and *Gakdae*(角帶), and those in *Dugeon*(頭巾). However, they were not showed up in private *Giroyondo*.

Key words: *Giroyondo*(耆老宴圖), *Sibok*(時服), *Sangbok*(常服), *Samo*(紗帽), *Hungnib*(黑笠), *Dalyong*(團領), *Jingnyong*(直領), *Dopo*(道袍)

## I. 머리말

耆老宴圖는 契會圖의 한 종류로서 耆老들의 契會를 기념하고 기록한 그림이다. 기록화로서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가진 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현재 여러 作例가 전해지는데 그림의 제목으로 <耆英會圖> 또는 <耆老會圖>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림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로회를 기념한 그림임을 알 수 있는 例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림들을 '耆老宴圖'라 통칭한다.

조선시대 기로연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養老'와 '君臣간의 신의'를 강조하여 太祖부터 高宗代에 이르기까지 전 왕조에 걸쳐 設行되었다. 기로연에 들 수 있는 자격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壽·德·爵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회에 참여하는 것은 대대로 영광이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남겨 기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계획도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여 연회의 제목과 연회 장면, 그리고 座目을 함께 기록하였다.

기로연의 성격은 정치적 목적과 사회현상에 따라 달라진다. 朝鮮朝 전반기에는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으로서 高齡의 전·현직 高位 官職者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다. 이후 중·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사사로이 조직된 耆老會가 많아지고 참여한 신료들의 범주가 넓어진다. 또한 왕의 耆老所 入社는 또 다른 의미와 성격을 가진다. 조선시대에는 太祖의 기로소 입사를 전례로 肅宗, 英祖, 高宗이 기로소에 입사하게 되는데 이는 왕권강화와 교화의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듯 시대적 배경에 따라 기로연의 성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로연도 또한 그 성격을 반영한다. 기로연도에 표현된 등장인물의 구성이 다르고 참여자들의 옷차림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로연도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참여자들 중 官僚層의 服飾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II. 耆老宴圖의 형식 및 내용

기로연도는 상단에는 전서체로 계획의 명칭을 적고 중단의 화면에 계획장면을 그려 넣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座目 및 序文을 써 넣는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에 표현된 계획장면들은 시대와 종류에 따라 비슷한 구도와 양식을 보인다. 초기의 계획도는 山水를 중심으로 한 양식이 주이고, 16세기 이후에는 인물의 묘사가 두드러진다.<sup>1)</sup> 그 이후 점차 양식화 되어 일정한 장면이 틀을 갖게 되는데 산수화의 변화나 복식, 건물 등의 표현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소재가 된 동기이며, 또한 繪畵의 樣式化라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표 1> 17·18세기 耆老宴圖의 종류

종류	번호	명칭	행사년 (제작년)	소장처
公 的 인 宴	1	耆老所宴會圖	1621	國史編纂委員會
	2	耆碩說宴之圖	1621	奎章閣
	3	賜几杖宴耆老會圖	1623	國立中央博物館
	4	四老宴會圖屏	1689	서울大博物館
	5	甲辰耆社宴會圖	1724	成均館大博物館
私 的 인 宴	6	南池耆老會圖	1629	서울大博物館
	7	梨園耆老楔帖	1730	奎章閣
	8	梨園耆老會圖	1730	國立中央博物館
宮 中 賜 宴	9	耆社賜宴圖 (耆社契帖)	1719 (1720)	梨花女大博物館
	10	本所賜宴圖 (耆社慶會帖)	1744	國立中央博物館
	11	宗親府賜宴圖	1744	서울大博物館

17·18세기의 기로연도는 연회의 목적에 따라 公的인 기로연, 私的인 기로연, 宮中賜宴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첫째, 公的인 기로연도에는 1621년의 <耆老所宴會圖>와 <耆碩說宴之圖>가 있다. 壬辰倭亂·丙子胡亂으로 공식적인 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시기에 公物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기로회를 열었는데, 그때의 연회를 기념한 것이다. 이 두 작품은 도상과 좌목의 내용이 일치하며, <耆碩說宴之圖>는 훼손이 심하여 <耆老所宴會圖>를 참고로 본 형상을 추측할

수 있다. 또 궤장하사연을 겸한 1623년의 <賜几杖宴兼耆老會圖>와 약 100년 후인 1724년의 <甲辰耆社宴會圖>가 있다. 그리고 <四老宴會圖屏>은 肅宗대에 己巳換局으로 재집권한 남인정권의 핵심들이 영의정 權大運의 궤장하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연회를 기록한 것이다.<sup>2)</sup> 정권이 자주 바뀌었던 만큼 기로소의 회원 또한 자주 바뀌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기로회는 사사로이 조직되기도 하였는데, <南池耆老會圖>와 <梨園耆老會圖>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南池耆老會圖>는 後代의 模本이 많으나 原本으로 추정되는 서울大博物館 소장의 <南池耆老會圖>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梨園耆老會圖>는 奎章閣 소장본과 國立中央博物館 소장본이 있다. 私的인 耆老會는 「後耆英會序」에 기록된 會目과 會約에 그 성격이 드러난다.<sup>3)</sup> 최대한 간소하게 운영하여 차림도 간소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나이로 차례를 정한 사실은 私的인 耆老會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宮中賜宴이란 본 연구에서는 기로연 중에서 궁중행사격으로 설행된 것을 통칭하겠다. 왕의 耆老所 入社宴은 다른 기로연보다 국가의례적인 규모로 치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太祖이후 肅宗과 英祖, 高宗이 기로소에 입사하였으나 현재 파악되는 도상은 肅宗대의 <耆社契帖>과 英祖대의 <耆社慶會帖>이 있다. 왕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특별한 행사를 그린 것이지만, 연회장면을 그린 賜宴圖는 성격이 기로연도와 비슷하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英祖의 入耆社때의 종친들에게 사연한 <宗親府賜宴圖>도 함께 볼 것이다.

기로연도의 역사적 위상을 드러내는 가장 큰 것은 하단에 적혀진 座目이다. 실제 인물들의 지위와 나이, 성명 등을 표기하였으므로 그 배경을 살필 수 있다. 좌목에 쓰여진 品階에 대해서는 행사시기가 後代로 갈수록 私的인 耆老會가 나타나는 편인데 품계의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宮中賜宴圖에는 시대가 後代일지라도 正 1·2 品만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좌목의 배설 순서는 公的인 기로회와 宮中賜宴에서는 품계 순으로 적었고, 私的인 기로회에서는 품계에 상관없이 나이순으로

배설하여 적었다.

### Ⅲ. 耆老宴圖에 나타난 官僚服色の 변화

기로연도에 나타난 官僚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연회의 주인공인 耆老臣과 수발을 드는 下級官吏이다. 이들의 복식변화는 연회의 목적에 따른 服色, 그리고 시기에 따른 形態의 차이로 나타난다.

#### 1. 耆老臣의 服飾

기로신은 紗帽·團領 차림과 黑笠·直領의 袍 차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 冠帽의 모양변화, 團領의 복색변화와 直領및 道袍의 가능성, 그리고 帶와 신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 1) 冠帽

관모는 紗帽와 黑笠 두 가지가 보인다.

##### (1) 紗帽

紗帽는 시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로연도에도 반영되었다. 대체로 17세기의 사모는 帽頂이 네모지고 짧은 형태(그림 1)<sup>4)</sup>인 반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는 모정이 높고 곧다(그림 2)<sup>5)</sup>. 이러한 변화는 17·18세기 肖像畫에서도 볼 수 있다.

사모는 조선시대 文武百官의 冠帽로서, 고려말 辛禡 13년에 明으로부터 賜與 받은<sup>6)</sup> 冠服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사모를 쓰기 시작한 가장 이른 기록은 『朝鮮王朝實錄』太祖대에 나타나는데<sup>7)</sup>, 그 이전엔 黑笠과 紗帽를 병행하였으며, 太宗대에 비로소 百官이 사모를 착용하게 되었다.<sup>8)</sup>

18세기 기로연도에 보이는 모정이 높은 사모는 唐體紗帽로 보인다. 世宗은 宗親·駙馬 및 文武 2품 이상에게 唐制의 사모 각 1頂씩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帽頂이 모두 짧아서 참관 李先齊는 ‘중국의 모정은 다 높고 黼족하다.’ 하였으므로 이를 고치게 한 것이다.<sup>9)</sup> 또 成宗은 唐體紗帽를 都承旨

曹偉에게 내리고 이를 본받도록 하였다.<sup>10)</sup> 때문에 18세기뿐만 아니라 16·17세기의 초상화에도 높고 곧은 모정의 사모가 사이사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宣祖 즉위년(1567)에 온 중국 사신 허위가 쓴 사모가 곧고 높았으니<sup>11)</sup>, 이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續大典』에 堂上 3품 이상은 紋紗角의 烏紗帽, 堂下 3품 이하는 單紗角의 烏紗帽로 규정하고 있다.<sup>12)</sup>



〈그림 1〉 <耆老所宴會圖>부분 (1621年)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자료  
 〈그림 2〉 <四老宴會圖屏>부분 (1689年) 출처: 서울대박물관소장

(2) 黑笠

기로연도에 표현된 흑립은 直領袍와 함께 쓰였으며 시대에 따른 모양의 변화를 보인다. 그림에 표현된 것 중 크게 비교가 되는 것으로, <南池耆老會圖>(仁祖 7, 1629年)의 도상에서는 모정이 낮고 양태가 좁으며(그림 3)<sup>13)</sup>, <梨園耆老會圖>(英祖 6, 1730年)에는 모정이 높고 양태가 넓게(그림 4)<sup>14)</sup> 그려졌다.

흑립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양은 『實錄』을 통하여 확인 된다. 燕山君 말기에는 모자가 낮고 양태가 넓어졌으며<sup>15)</sup>, 中宗代 말경에는 모자는 높고 크며 양태는 좁은 것이 유행하였다.<sup>16)</sup> 이렇듯 갖의 체제를 모두 제멋대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혹은 다른 나라 사람 같기도 하여 해괴하였다.<sup>17)</sup> 그 후 상의원에 명하여 갖의 규정품을 만들어 공식화하게 하고 위반한 자가 있으면 갖 만든 사람까지 죄를 주기도 하였다<sup>18)</sup>.

明宗代(1547~1548)에는 金舜臯가 慶尙右兵使로 있으면서 전의 갖 제도가 갈모(雨帽)를 쓰기에 불편하다 하여 옛날 제도에다 조금 그 高低와 廣狹를 加減하였는데, 그 뒤 점차 頂頭가 극히 낮아져 밥사발 뚜껑을 엮은 것 같고, 邊坪은 매우 넓어져 거의 작은 일산을 편 것처럼 생겼다는 기록이 있다.<sup>19)</sup> 이때에는 中宗代의 유행과 완전하게 구별되어 모자는 낮고 양태는 대단히 넓은 모자가 유행하였다.<sup>20)</sup> 이를 또 다시 모정은 높고 양태는 좁은 모자로 바꾸려 하였으나 경제가 어려워 그만 두게 된다. 또한 尹國馨의 『聞韶漫錄』에는 著者が “젊었을 때는 갖 모양이 좁은 얇고 테가 넓으며, 춤이 높은 갖을 보면 사람들이 옛날 것이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宣祖 즉위년(1567)에 다시 춤은 높고 테는 좁은 것을 착용하였다.<sup>21)</sup>

孝宗 8年(1657)에는 모자가 너무 높고 양태가 너무 넓어 문을 드나들 때 방해가 될 정도였다. 갖의 양태가 너무 넓은 자는 금지시키도록 하였다.<sup>22)</sup>

肅宗 17年(1691)에는 ‘갖 모양이 帽가 짧고 臺가 좁아서 예전과 크게 다르다’ 하여 지난날의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sup>23)</sup> 이때 지난날의 것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모가 높고 양태가 넓은 것이다. 이처럼 갖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 빈번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그림에 반영되었다.



〈그림 3〉 <南池耆老會圖>부분 (1629年) 출처: 서울대박물관소장  
 〈그림 4〉 <梨園耆老會圖>부분 (1730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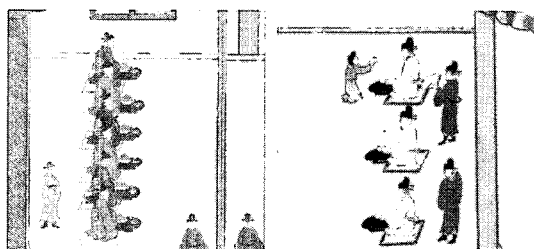
2) 團領

기로연도에 표현된 團領은 宴會의 성격에 따른 服色의 차이와 시기에 따른 형태의 특징을 보인다. 耆老臣의 단령은 公的인 연회도와 宮中賜宴圖에서만 보이는데, 紅色과 玄綠色 두 가지가 나타난다.

公的인 기로연도에서는 紅色·淡紅色으로 표현되었으며, 宮中賜宴圖에서는 玄綠色으로 표현되었다(그림 5)<sup>24)</sup>.

(1) 연회 성격에 따른 복색의 차이

관료들의 복색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으나, 宮中賜宴圖 기로신의 玄綠色 단령은 시기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연회 성격에 따른 복색의 차이인 것이다. 왕의 耆老所 入社라고 하는 국가의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重한 색을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1720년의 <耆社賜宴圖>와 1724년의 <甲辰耆社宴會圖>를 비교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그림 6)<sup>25)</sup>, 비슷한 시기, 같은 기로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색은 의례용 흑단령과 평상시의 홍단령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례용-흑단령'과 '평상복-홍단령'에 대한 기록과 기로연도에 표현된 바를 확인하고, 홍단령의 분화와 당하관의 복색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림5> <耆社賜宴圖>, <耆社契帖>의 부분(1720年)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소장

<그림6> <甲辰耆社宴會帖>의 부분(1724年)  
출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소장

단령은 고려 말 明으로부터 받아들여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官服으로 사용 되었다. 신분에 따라 재료와 色, 길이 등이 다르게 쓰였으며 色으로서 사용처의 輕重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時服과 常服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조선 초에는 시복과 상복의 명칭이 같은 의미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 되었다.<sup>26)</sup> 『實錄』에는 칙서를 맞이할 때 '時服'을 입는다<sup>27)</sup>고 하였으나 『五禮儀』에는 동일상황에 '常服'을 입는다<sup>28)</sup>고 기록되었음을 예로 들었다. 이러

한 이유로 光海君 2年(1610)에도 용어의 혼동으로 인한 불찰을 고하고 있다.<sup>29)</sup> 또한 肅宗朝의 耆老宴 의식에서도 常服차림으로 기록되어<sup>30)</sup> 도상에 표현된 黑色은 常服이며, 正祖代에는 時服이 흑단령임을 말하고 있다.<sup>31)</sup> 이처럼 시복과 상복의 개념은 혼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각 시대별 일례의 세세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복과 상복이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떠나 의례복은 흑단령, 평상복은 홍단령이라는 복색의 의미는 조선 후기 까지 지속된다.

먼저 '의례용-흑단령'이라는 정의는 世宗 28年(1446) 『五禮儀』에 시작된다. 常參 및 朝參에 입을 '黑衣'<sup>32)</sup>를 정하였다. 中宗代에는 時服은 鵝青色이며<sup>33)</sup>, 時服과 常服의 용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時服은 예를 갖추는 常參·朝參과 拜辭 때에 입었으며, 常服은 친근하게 대하는 평상복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sup>34)</sup>

한편 '평상복-홍단령'이라는 정의는 端宗 2年(1454)에 朝啓·常參 이외에 土紅色을 입도록 한 규정에서 확인 된다.<sup>35)</sup> 이는 편한 차림으로 紅色을 정한 것이다. 또 成宗代에도 土紅色을 세탁하기 편하다 하여 즐겨 입었으며,<sup>36)</sup> 常參·朝啓 외에 經筵·後苑에서 觀射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黑團領을 금지하였다.<sup>37)</sup> 이에 成宗은 文彩가 너무 없으므로 雜色을 허용하기도 하였다.<sup>38)</sup>

그런데 光海君代에는 時服과 常服의 色에 대하여 혼동하였다. 光海君 2年(1610)에 "세상에서 말하기로는 紅團領 차림을 常服이라 하고 黑團領 차림을 時服이라고 하지만..... 『五禮儀』에 기재된 것을 보면 黑團領 차림을 常服으로 삼은 곳이 매우 많은데, 가령 칙서를 영접할 때의 의례라든가 朝參·常參 등의 의례 그리고 拜表할 때 입을 使者의 복색 모두를 常服으로 기재해 놓고 있다."고 하였다.<sup>39)</sup> 또 동왕 3年(1611)에는 親迎嘉禮의 服飾을 논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입는 붉은 옷으로 成禮를 陪從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였다.<sup>40)</sup>

이렇듯 禮曹에서 黑團領을 常服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는 예조에서 色으로 일의 輕重을 가렸던 服制

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에만 의존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매 건마다 일의 輕重과 禮儀를 가려서 服色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耆英會圖>와 <耆碩說宴之圖>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1621년의 <耆碩說宴之圖>에 나타난 紅團領은 光海君 2年(1610)의 常服과 時服의 혼동 이후에 나타난 紅色이다. 같은 公的인 기로연의 성격인 1584년의 <耆英會圖><sup>41)</sup>에서도 흥단령이 나타나는데 이는 常服과 時服의 服色 혼동 이전의 일이므로 비교가 된다. 같은 公的인 기로연이었으므로 禮가 같았을 것이며 色 또한 같게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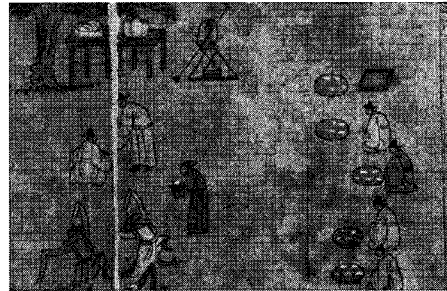
또한 英祖 17年(1741)에 紅團領의 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輕重을 구분하였던 服色이므로 紅團領을 그대로 입었다.<sup>42)</sup> 그 輕重은 임금의 복색에 따른 것이었는데 임금이 袞服을 입으면 신하들은 黑團領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sup>43)</sup> 그리고 『續大典』에 大小朝儀 때는 玄綠色, 그 외에는 紅色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례복과 평상복의 服色 구분은 世宗代부터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기로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이다.

### ① 흥단령의 分化

조선중기의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은 사회·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甲辰漫錄』에 따르면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후에는 모두 철릭과 絲帶, 삼신을 착용하였으나 중국 장수를 接伴하는 사람과 廟社際의 獻官만이 紗帽와 品帶로 時服을 입었다.<sup>45)</sup> 己亥年 무렵에 紗帽冠帶를 복구하여 團領을 黑色으로 제정<sup>46)</sup>하였으나 宣祖 년간에 다시 淡紅色을 입게 되었다. 黑色으로 제정한 服色은 일시의 權制에서 나온 것이므로 舊制를 따라야 하는데, 중국 사신이 君臣의 복색이 구별이 없음을 조롱하니, 군신간의 服色을 구별하여 조신들은 항상 淡紅色(淺紅色)을 입도록 하였다.<sup>47)</sup>(그림 7)<sup>48)</sup>. 따라서 임금과 가까이하는 신하는 담홍색, 그 이하는 홍색으로 分化하게 된 것이다. 『續大典』(표 2)에도 당상 3품 이상은 담홍포, 당하 3품 이하는 홍포로 기록되었다. 또

한 1623년의 <賜几杖宴耆老會圖>와 1689년의 <四老宴會圖屏>에는 淡紅色과 紅色이 함께 나타난다.



<그림 7> <賜几杖宴耆老會圖>부분(1623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표 2> 『續大典』에 기록된 服制度

品階	服		胸背	
	大小朝儀	文臣	武臣	
堂上3品以上	淡紅袍	玄綠色紗緞	雲鶴	經國大典同
堂下3品以下	紅袍	玄綠色紵絹	白鷗	經國大典同
綠事	紅團領	青玄色	-	-
別監	紅直領	綠色	-	-
守僕	紅直領	-	-	-

### ② 당하관 복색의 변경: 靑綠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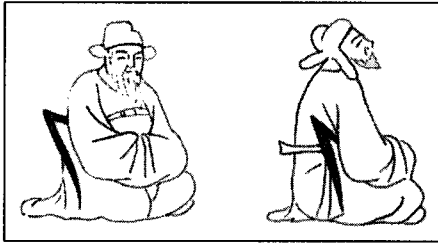
英祖 20年(1744) 『續大典』에 2품 이상은 緋色, 당상관 정3품은 紅色, 종3품 이하는 靑色, 7품 이하는 綠色으로 고치는 것을 기록하게 하였다.<sup>49)</sup> 朝臣의 복색을 2품 이상은 舊制에 淡紅을 쓰게 한 것은 지위가 높고 임금과 가까이 있어서 복색을 붉게 하지 않았던 것이며, 당하관의 붉은 복색은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변경하는데 어려워하였다.<sup>50)</sup> 그러나 英祖 33年(1757)에 堂下 時服은 舊制대로 靑綠色을 사용하게 되었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뒤에 紅袍로 변화하였으니 구제대로 綠袍를 착용하라는 것이다.<sup>51)</sup> 이는 군신이 같은 복색임을 비웃는 중국의 눈치를 보아서, 그리고 사치풍속을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한 것이다.

### (2) 형태적 특징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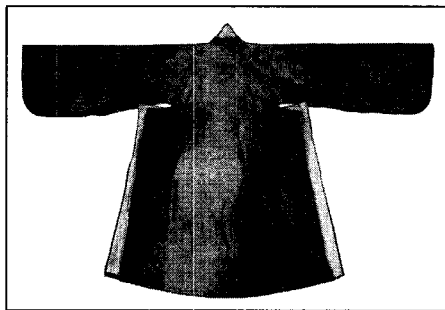
團領 遺物의 시기를 분별하는 형태 요소 중 하나는 무의 모양이다. 조선 초기에는 사각접힘무이고,

17·18세기는 주로 세모모양이 나타나며, 이후 뒤로 젖혀져 고정되어 나타난다.

17·18세기의 세모 모양의 무는 1621年 作 <耆老所宴會圖>의 단령에 묘사되었다. 이시기의 出土遺物인 晉州姜氏의 團領은 무의 모양이 앞, 뒤가 다르다. 따라서 안감과 걸감의 색이 달랐을 때 무가 겹쳐지면서 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화가의 눈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된 것이다.



<그림 8> <耆老所宴會圖>의 耆老臣, 부분模寫(1621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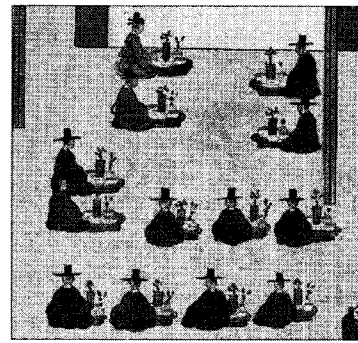
<그림 9> 團領 뒷모습, 晉州姜氏 大虎(1541~162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 3) 直領·道袍

私的인 기로연도에 표현된 耆老臣들은 곧은 깃의 袍와 黑笠, 條帶를 함께 착용하였다. 또 <耆社賜宴圖>와 <本所賜宴圖>에도 곧은 깃의 靑色袍와 黑笠 차림의 參與者들이 표현되어 있다.

곧은 깃으로서 直領, 道袍, 弊衣로 추정 할 수 있으나 도상으로 그 종류를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뒤가 트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弊衣는 排除하고, 사대부의 편복으로 直領과 道袍를 살펴 볼 수 있겠다.

服色에 대하여는 『芝峰類說』에 이르기를, '우리나라 儒士들이 사사로이 出入할 때에 역시 紅直領을 착용하였는데 明宗 말년에 연달아 國喪을 당하여 흰 옷을 입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대로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sup>52)</sup> 그러나 그림에 보이는 복색은 <南池耆老會圖>나 <梨園耆老會圖> 그리고 <耆社賜宴圖>와 <本所賜宴圖>에 靑色·綠色·米色 계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本所賜宴圖>의 靑色은 『續大典』에 文武官 士大夫 士庶人은 모두 靑服으로 꾸미게 한다<sup>53)</sup>는 기록과 일치한다(그림 10)<sup>54)</sup>.



<그림 10> <本所賜宴圖>, <耆社慶會帖>부분(1744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소장

直領은 團領과 깃의 형태만 다른 袍이다. 王世子의 冠禮 등에 쓰이기도 하였으며 士大夫의 便服으로 입혀졌다. 世宗 때 단령이 官服으로 승격된 후 職령은 賤人과 庶民의 儀禮服으로 되었다. 또한 『經國大典』의 官服制度에서는 闕內各差備의 公服, 鄉吏와 別監의 常服으로 삼았다.<sup>55)</sup> 英祖 26年(1750)<sup>56)</sup>과 正祖 16年(1792)<sup>57)</sup>의 기록에는 武官의 職령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純祖 29年(1819)<sup>58)</sup>의 기록에는 職령과 도포는 편복으로서 옛날에는 사대부가 일상생활 할 때 대부분 職령을 입었고, 근세에는 대부분 도포를 입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관의 職령 착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대부의 편복포제로서 도포의 착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629年의 <南池耆老會圖>는 단언할 수 없더라도 1730年의 <梨園耆老會圖>와 1744年의 <本所賜宴圖>의 곧은 깃의 포는 道袍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道袍는 기존의 연구<sup>59)</sup>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착용한 예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홍의장군 郭再祐의 父 郭越(1518~1586)에 대하여 金世爌가 찬한 「贈禮曹判書郭越神道并序」중에 나타난 기록이다.

당시 신분이 낮은 윤원형의 도포착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明宗代에 도포를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신분이 낮은 자가 함부로 입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宣祖修正實錄』과 李陞光의 『芝峰類說』에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宣祖 7年(1574)에 趙憲이 명나라에 節正使로 다녀온 후 宣祖에게 명의 본받을 만한 문물제도를 건의 하는 내용으로, 중국 조정에서 착용하는 紅袍나 靑袍의 주름이 단령과는 다르고 오히려 도포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도포를 착용하고 있었음과 도포에 주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宣祖 40年(1607)에 李弘望이 착용한 '초록 겹도포'<sup>60)</sup>가 나타난다. 또 『孝宗實錄』에는 도포가 壬辰年 뒤부터 있었다고<sup>61)</sup> 기록되어 있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도포가 형태의 변화를 거치면서<sup>62)</sup> 壬辰亂 이후부터 보편화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耆老臣들의 直領袍로 道袍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포의 형태는 出土遺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뒤에 덧자락이 덮여지는 옷이다. 金東旭의 논문에 기록된 韓元震(1682~1751)의 『南塘草稿』의 기록<sup>63)</sup>에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直領과 道袍의 遺物을 살펴보면 형태 차이는 뒷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梨園耆老會圖〉의 포의 뒷 모습을 보면 겹으로 드러나는 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道袍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11)<sup>64)</sup>.



〈그림 11〉 〈梨園耆老會圖〉부분(1730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4) 帶 · 신

耆老臣의 帶는 疏略한 모습이다. 公的인 기로연도와 궁중사연도에는 角帶를 띠었으며, 私的인 기로연도에서는 실띠[條兒]를 띠는 모습이다. 公的인 기로연도에 보이는 角帶는 黃色 계열로 나타나며 부착된 수식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사이사이 黑色의 帶가 표현되어 있어 비교적 낮은 계급의 관리임이 드러난다. 私的인 기로연도 중 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의 〈梨園耆老會圖〉에는 실띠의 색도 표현되어 있는데, 기로신의 것은 紅色과 黑色이 나타난다.

또한 〈四老宴會圖屏〉은 帶의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다음은 〈四老宴會圖屏〉에 표현된 대의 부분이다.

〈표 3〉 〈四老宴會圖屏〉에 표현된 帶

유형	A형	B형	C형
부분			
해당 인물	權大運 (正1品)	다른 耆老臣 (從1品)	子弟(從2品~ 正3品)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대는 3가지로 묘사되어 있다. 각 인물들의 품계는 정1품, 종1품, 종2품~정3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는 관직의 품계를 구별하는 신분 표시로 재료와 색, 만드는 기법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다. 角帶類로는 犀帶 · 荔枝金帶 · 黑角革帶 · 鍍金帶 · 鍍銀帶 · 素金帶 · 素銀帶가 있고, 실로 된 대로는 條兒 · 광다회가 있다. 『經國大典』에는 帶의 제도에서만 私服의 개념이 보이는데 1품부터 3품까지만이 紅條兒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5)</sup>

『經國大典』에 따르면 A형 · B형은 犀帶, C형은 素金帶 혹은 鍍銀帶일 것이나 표현된 바로는 장식에 대한 묘사는 없고 대의 바탕색만이 표현되어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또 정1품이던 A형과 종1품이던 B형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다른 종류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계급에 따라 다른 대를 착용함으로써 신분의 서열을 나타내었으며 기로연도에서도



그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耆老臣들은 대부분 실내에 앉아있는 모습이므로 신에 대한 표현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1550年代 作으로 추정되는 〈戶曹郎官契會圖〉에는 殿閣 위에 있는 관원이 흑색의 신을 신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발목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靴인지 鞋인지 분간은 어려우나 전각 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다.

『太祖實錄』에 기록되기를 明年 元正부터 冠服을 입도록 하였는데 신은 각 품이 동일하게 青色으로 만든 靴를 신도록 하였다.<sup>66)</sup> 신에 대한 禁制는 주로 皮屨이나 고급비단, 금속제 사용 등 소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靴 착용 금제가 확인된다.<sup>67)</sup> 成宗代의 『經國大典』에는 公服은 1품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黑皮靴로, 常服은 1품부터 3품까지만 挾金靴로 규정하고 있다.<sup>68)</sup>

靴에 대한 모양은 中宗 29年(1534)의 기록에 보이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가죽 위에 襪을 붙이고 그 말 위에 鞋을 덧붙여 매우 순박하다.” 하였다.<sup>69)</sup> 挾金靴는 靑皮屨, 靑皮屨, 靑皮屨 등이 기록<sup>70)</sup>에 있으며, 재료가 다양한 가운데 신 밑창에 징을 박은 신으로 보인다.<sup>71)</sup>

## 2. 下級官吏의 服飾

기로신의 시중을 드는 下級官吏는 公的인 기로연도와 宮中賜宴圖에 나타난다. 紗帽冠帶 차림의 관리와 頭巾·條兒 차림의 관리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肅宗朝 己亥進宴儀軌』와 『英祖朝 甲子進宴儀軌』에 進止錄事와 進止書吏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임무는 參與諸臣의 진지를 시중드는 것이다. 參宴제신 중 정2품 이상의 진지는 녹사가 하고, 정2품 이하의 서리가 한다. 이들의 服裝은 肅宗代와 英祖代가 같으며, 모두 黑團領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시로 충원하는 진지서리에 대하여 頭巾, 黑團領, 黑靴子를 착용하도록 하였다.<sup>72)</sup>

〈표 4〉 『續大典』에 기록된 下級官吏 服飾

品階	冠	服	
			大小朝儀
綠事	烏紗帽	紅團領	靑玄色
別監	紫巾 (世子宮 또는 嬪宮-皂巾)	紅直領	綠色
守僕	皂巾	紅直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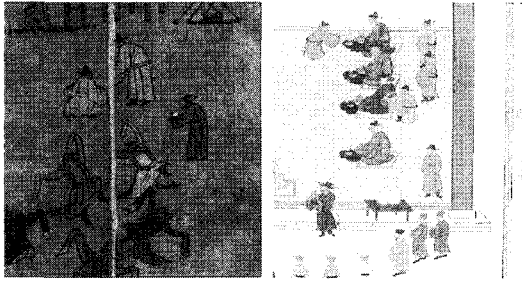
### 1) 冠·袍

〈甲辰耆社宴會圖〉에는 烏紗帽와 紅團領으로 그려져 있고(그림 6), 〈耆社賜宴圖〉·〈本所賜宴圖〉에는 烏紗帽와 靑團領으로 그려져 있다(그림 16, 17). 『續大典』(표 4)에 따르면 大小朝儀 때는 靑絃色, 그 밖에는 紅色으로 기록된 綠事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耆社賜宴圖〉의 胸背단령을 입고 시중을 드는 사람에 관해서는 肅宗 18年(1692)의 기록에 따라 6품 이상의 官員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sup>73)</sup>

巾과 直領을 입은 하급관리는 紫巾·紅直領, 皂巾·靑, 綠直領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續大典』(표 4)에 따르면 別監, 守僕으로 이들의 복색도 大小朝儀 때에는 綠色, 그 밖에는 紅色으로 표기되어 기로신의 服色과 一脈相通한다. 그러나 宮中賜宴圖인 〈耆社賜宴圖〉에서 紫巾·紅直領과 皂巾·靑袍가 함께 나타나 또 다른 신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帶·신

〈그림 16, 17〉에서 보듯이 紗帽를 갖춘 관리는 黑靴를 신고 각대를 띠고 있다. 그리고 頭巾을 쓴 관리는 鞋 혹은 履를 신고 실따를 띤 모습이다. 기로신이 앉아 있는 실내에서도 흑화를 신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經國大典』에는 1품부터 9품까지의 관리들은 靴로 규정되어 있는데 下級官吏들은 鄉吏에게만 皮鞋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肅宗朝 己亥進宴儀軌』와 『英祖朝 甲子進宴儀軌』에서 進止書吏와 錄事는 黑靴子를 신도록 기록하고 있다.



〈그림 15〉  
〈賜几杖宴耆老會圖〉부분  
(1623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그림 16〉〈耆社賜宴圖〉,  
〈耆社契帖〉부분(1720年)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소장



〈그림 17〉〈本所賜宴圖〉,  
〈耆社慶會帖〉부분(1744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IV. 맺음말

본 연구는 耆老宴圖에 나타난 官僚의 服色에 대해 연회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비교 연구한 것이다. 기로연도는 연회의 목적에 따라 公的인 기로연도, 私的인 기로연도, 宮中賜宴圖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복식도 달라진다.

연회의 주인공인 耆老臣은 公的인 기로연도와 궁중사연도에서 紗帽와 團領을 입고 있으며, 私的인 기로연도에서는 黑笠과 곧은 갓의 袍를 입은 모습이다. 한편 단령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公的인 기로연도는 紅色, 궁중사연도에서는 黑色을 착용하였다. 이는 행사의 輕重을 가려 행한 服制에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또, 〈本所賜宴圖〉에 기로신 外의 參與者들의 복색이 靑色으로 그려졌다. 『續大典』에 “文武官, 士大夫, 庶人은 모두 靑服으로 꾸미게 한다.”고 기록된 바와 일치한다.

또한 시대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17·18세기 단령의 가장 큰 특징인 세모모양의 무가 특징적으로 표현되었으며, 후림과 사모도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묘사되었다.

기로신의 시중을 드는 하급관리는 公的인 기로연도와 궁중사연도에만 나타나는데, 紗帽冠帶 차림과 頭巾·條兒차림의 두 부류가 보인다.

한편 『肅宗 己亥進宴儀軌』와 『英祖 甲子進宴儀軌』에서는 기로신의 시중을 드는 進止緣事와 進止書吏가 頭巾, 黑團領, 黑靴子를 착용하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續大典』에 緣事는 烏紗帽를 쓰고, 大小朝儀 때는 靑絃色, 그 밖에는 紅色 團領을 입는다. 別監은 紫巾·紅直領, 守僕은 烏巾·紅直領으로 나타난다. 이들 또한 대소조의때는 靑玄色·綠色으로 구별하고 있어 의례용 黑色과 평상시의 紅色인 복색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또 胸背團領을 입고 宣醜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肅宗代의 흉배규정에 따라 6품 이상의 관원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로연도는 기로연이라는 특정한 연회를 기념한 도상이기 때문에 연회의 성격에 따른 비교와 시기에 따른 비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회화자료가 복식연구의 구체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尹軫暎 (2004).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2 참조.
- 2) 진준현 (2003). 권대운의 기로연회도병풍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연구논문집 1, 서울대학교박물관 學術叢書 12, 서울대학교박물관, p. 10.
- 3) 尹軫暎, 앞의 논문, p. 67.
- 4) 〈耆老所宴會圖〉(1621). 軸. 絹本彩色.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자료.
- 5) 〈四老宴會圖屏〉(1689). 屏. 絹本彩色. 전체 199×485cm (그림 각폭 60.6×144.3cm). 서울대박물관.
- 6) 高麗史 卷136, p. 24.
- 7) 太祖實錄 卷9 太祖 5年 6月 丁酉條.
- 8)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12月 辛丑條.
- 9) 世宗實錄 卷126 世宗 31年 10月 乙丑條.
- 10) 成宗實錄 卷277 成宗 24年 5月 乙亥條.
- 11) 尹國馨(1543~1611)著 (1971). 聞韶漫錄 국역 대동야승 X IV. 민족문화추진회, pp. 37~38.
- 12) 서울대학교奎章閣 (1998). 續大典 卷3 禮典, pp. 227~

- 228.
- 13) <南池耆老會圖>(1629)의 부분. 李起龍. 軸. 絹本彩色. 116.7×72.4cm. 서울大博物館.
- 14) <梨園耆老會圖>(1730)의 부분. 卷. 紙本彩色. 34.0×48.5cm. 國立中央博物館.
- 15) 燕山君日記 卷53 燕山君 10年 5月 丁巳條.
- 16) 中宗實錄 卷54. 中宗 20年 5月 壬辰條.
- 17) 中宗實錄 卷54 中宗 20年 5月 庚辰條.
- 18) 中宗實錄 卷68 中宗 25年 5月 丁未條.
- 19) 李濟臣(1536~1583)撰 김주희 譯 (1979). 清江先生鯨鱗瑣語 國역 대동야승 X IV. 민족문화추진회, pp. 395~396.
- 20) 明宗實錄 卷20 明宗 11年 6月 丙午條.
- 21) 尹國馨. 앞의 책, pp. 37~38.
- 22) 孝宗實錄 卷18 孝宗 8年 1月 癸丑條.
- 23) 肅宗實錄 卷23 肅宗 17年 2月 癸未條.
- 24) <耆社賜宴圖><耆社契帖>의 부분(1720). 帖. 76×59.5cm.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 25) <甲辰耆社宴會帖>(1724)의 부분. 帖. 紙本彩色. 45.5×23.7cm. 成均館大學校博物館.
- 26)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 pp.38~50.
- 27) 世宗實錄 卷67 世宗 17年 3月 庚寅條.
- 28) 世宗實錄 卷132 五禮儀 嘉禮 迎勅書儀.
- 29) 光海君日記 卷33 光海君 2年 9月 庚戌條.
- 30) 法制處 (1982). 國朝五禮儀(5), p. 137.
- 31) 正祖實錄 卷3 1年 6月 庚子條.
- 32) 世宗實錄 卷111 28年 1月 辛卯條.
- 33) 中宗實錄 卷34 中宗 13年 9月 甲子條.
- 34) 中宗實錄 卷36 中宗 14年 6月 辛未條.
- 35) 端宗實錄 卷11 端宗 2年 5月 壬子條.
- 36) 成宗實錄 卷185 成宗 16年 11月 戊辰條.
- 37) 成宗實錄 卷23 成宗 3年 10月 丙戌條.
- 38) 成宗實錄 卷185 成宗 16年 11月 辛未條.
- 39) 光海君日記 卷33 光海君 2年 9月 庚戌條.
- 40) 光海君日記 卷46 3年 10月 己丑條.
- 41) <기영회도>(1584). 軸. 絹本彩色. 163.0×12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본 연구의 분류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16세기 말의 작품으로 公의인 기로연을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 42) 英祖實錄 卷53 17年 4月 壬寅條.
- 43) 英祖實錄 卷53 英祖 17年 4月 壬寅條.
- 44) 서울大學校奎章閣 (1998). 續大典 卷3 禮典, pp.227~228.
- 45) 尹國馨(1543~1611)撰. 권덕주 譯 (1971).- 甲辰漫錄 國역대동야승 X IV, pp. 96~98.
- 46) 宣祖實錄 卷7 宣祖 31年 12月 庚午條.
- 47) 宣祖實錄 卷138 宣祖 34年 6月 甲戌條.
- 48) <賜几杖宴耆老會圖>(1623)의 부분. 帖. 紙本彩色. 51.1×32.7cm. 國立中央博物館.
- 49) 英祖實錄 卷60 英祖 20年 8月 己酉條.
- 50) 英祖實錄 卷70 英祖 25年 10月 庚辰條.
- 51) 英祖實錄 卷90 英祖 33年 12月 甲戌條.
- 52) 英祖實錄 卷53 英祖 17年 4月 壬寅條.
- 53) 續大典 : 英祖 22年(1746)에 완성되었으며, 經國大典制定後 3백년간에 걸쳐 이행한 법령을 수록한 大典續錄 受教輯錄과 條例中에서 발췌하여 집대성 한 것이다. : 文武士庶並今尙靑.
- 54) <本所賜宴圖> <耆社慶會帖>(1744)의 부분. 帖. 絹本彩色. 43.5×67.8cm. 國立中央博物館.
- 55) 서울大學校奎章閣 (1997). 經國大典 卷3 禮典, p. 237.
- 56) 英祖實錄 卷71 英祖 26年 3月 丙寅條.
- 57) 正祖實錄 卷35 正祖 16年 8月 乙卯條.
- 58) 純祖實錄 卷22 純祖 19年 3月 丁未條.
- 59) 이은주 (1998). 도포 형태의 전래와 발전 양상에 관한 실증적 고찰. 服飾, 36, pp. 1~23 참조.
- 60) 宣祖實錄 卷210 宣祖 40年 4月 癸巳條. : 前承文院正字 李弘望. 穿着草綠袂道袍
- 61) 孝宗實錄 卷18 孝宗 8年 1月 癸丑條.
- 62) 이은주. 앞의 논문, p. 9.
- 63) 이은주. 앞의 논문 재인용: 金東旭 (1983). 韓國服飾史辨證(16). 박물관신문, 142.
- 64) <梨園耆老會圖>(1730)의 부분. 卷. 紙本彩色. 34.0×48.5cm. 國立中央博物館.
- 65) 서울大學校奎章閣(1997). 經國大典 卷3 禮典, pp. 238~239.
- 66) 太祖實錄 太祖 元年 12月 壬子條.
- 67) 朴聖實 (2004). 靴·鞋·履. 석주선기념박물관, pp. 189~190 참조.
- 68) 서울大學校奎章閣 (1997). 經國大典 卷3 禮典, pp. 242~246.
- 69) 中宗實錄 卷78 中宗 29年 11月 丁亥條 : 我國則靴上加襪, 襪上加鞋
- 70) 世祖實錄 卷46 世祖 14年 4月 戊戌條, 庚戌條.
- 71) 朴聖實, 앞의 책, p. 194.
- 72) 송방송·박정련 외 (2001). 國譯 肅宗朝己亥進宴儀軌. 민속원
- 송방송·고방자 외 (1998). 國譯 英祖朝甲子進宴儀軌. 민속원.
- 73) 肅宗實錄 卷24 肅宗 18年 12月 癸未條.